

엠펙스 확진자, 모르는 사람과 밀접 접촉 다수

‘낙인’ 등 고려, 선제적 검사 신중한 입장 보여 국내 엠펙스 확진환자 역학조사 경과 발표해

국내 엠펙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이 더 늘어 누적 18명이 됐다. 이 중 13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확진자의 대다수가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인’ 등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펙스 확진환자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엠펙스 환자는 전남 16번째 확진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국내 누적 엠펙스 확진자는 18명이다.

추가로 발생한 2명 모두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 18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두 환자 모두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명 중 15명은 선형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2명은 환자자와 접촉, 1명은 환자 치료 병상 의료진이다.

지난 7일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엠펙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이 나왔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인 6번째 확진자는 감염원을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만나 지금껏 추적해내지 못한 상태다.

임 단장은 “이분들이 만나게 되었던 인터넷과 아이디(ID)를 통해서 저희가 추적했지만 이 서버가 외국에 있고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며 “익명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행동들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3명의 확진자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

로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었으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

임 단장은 “전국에 걸쳐서 (환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내에서 (환자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질환이 잠복기가 길고 은밀한 방식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주요 임상증상은 환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깨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고 발진은 모든 환자에게 나타났다.

임 단장은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환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펙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경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2-4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료 되는 경우도 많고, 특별한 후유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일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철저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의심증상 접촉자의 신속한 격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펙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5개 이상의 병상을 지정하도록 했고,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시도에서는 10개 이상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이후 환자의 발생 추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이 확인된 환자 방문 장소 및 사용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이용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고위험군 이용 커뮤니티 및 관리 단체와 협업체 엠펙스 질환 특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함께 홍보·교육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국내의 확진 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펙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와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세밀한 증상 감지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국내 엠펙스 치료제는 지난해 7월 504명분(1008명)을 도입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0명, 17개 시도에 각각 24명씩을 공급했다. 백신은 지난해 8월에 3세대 두창 백신 5000명분(1만 도즈)을 도입했다. 진단 검사 시약은 4400명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2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

임 단장은 “엠펙스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많은 의료진, 엠펙스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 즉 중위험군 이상의

접촉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안내 및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이 질환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또는 낙인 예방 측면에서 (선제적 접종은) 조금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엠펙스 환자 수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전 세계 총 110개국에서 8만7039명이 확진됐고 120명이 사망했다. 엠펙스 확진자 96.4%가 남성이고 79.2%는 18-44세다. 아시아에서는 7개국 169명이 확진됐고 일본이 103명으로 가장 많다.

감염경로가 조사된 1만8946명 중 82.1%인 1만5564명이 성적 접촉으로 확진됐다. 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만6511명 중 1만7691명(48.5%)이 HIV 양성이었다.

남성 환자의 경우 성적 지향이 확인된 3만438명 중 84.1%인 2만8690명이 남성성과 성관계를 했으며 7.8%인 2004명은 양성애자다. 여성 엠펙스 환자는 3.6%인 2800명이며 성적 지향이 확인된 여성 1021명 중 96%인 979명이 이성애자였다.

치료 경과를 보면 입원 4083명, 중환자실 입원 45명 등이 보고됐다.

임 단장은 “엠펙스는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력동원 임명확인관 전시임무 교육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최근 '23년 상반기 총무훈련을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병력동원 임명확인관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전산장비 나눔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18일 사용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불용 판정된 장비 중 취약계층이나 지자체 등에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을 선별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및 완도군청에 무상 양여 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담양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담양군청 주민복지과 등 6개팀이 참석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2023년 소방장비관리 상태 확인 점검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전남소방본부 주관으로 본부 장비팀장 등 점검관 15명이 광양소방서에 방문해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광주학운초 안전체험부스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최근 광주학운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4.19혁명 기념일, 고인 추모하는 유가족

4.19혁명 63주년이 되는 19일 서울 강남구 4.19민주묘지에서 최문경(85) 씨가 친동생(고 최기태·당시 20세)을 추모하고 있다. 고 최기태 씨는 이기봉 집 앞 시위에서 숨졌다.

4.19혁명 63주년인 19일 서울 강남구 4.19민주묘지에서

최문경(85) 씨가 친동생(고 최기태·당시 20세)을 추모하고 있다. 고 최기태 씨는 이기봉 집 앞 시위에서 숨졌다.

‘JMS 엽기적 성 착취’ 추가 폭로

“감옥 있는 정명석에 선정적 사진 찍어 보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인 엽기적 성 착취 행태가 추가로 폭로됐다.

18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정명석에 감옥에 있던 도중 벌인 성 착취 행태를 폭로하고 교단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보자들은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했다”며 “정명석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 해외에서 키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한국에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정조은을 거쳤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탈퇴자 A씨는 “정조은은 (정명석과) 여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명석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성관계뿐이니 한국에 있는 언니(정조은)와 소통하며 누구를 보낸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더라”, “밤마다 인스타그램으로 누구 (정명석의 방에) 올라가라고 연락했다”고도 덧붙였다.

정조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따로 관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정명석은 감옥에서 정조은이 보낸 여신도의 사진을 받아 마음에 드는 것을 주었으며, 이렇게 결재된 여신도

들은 이른바 ‘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러한 스타는 외국인을 포함해 1000명이 넘었다.

스타 출신 탈퇴자 B씨는 “어느 날 편지를 받았다. 한 목사를 만나러 가라고 하더라”며 “그 목사가 만나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으니 너무 좋아하더라. 조각을 떠도 되겠다고 얘기해서 전신 조각을 떼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그는 “실리콘을 몸에 바르면 몸의 숨구멍도 다 막히지 않나. 숨을 못 쉬어서 앞만 보인다고 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했다.

B씨는 “하체 조각을 뜨기도 했다”며 “전신 (조각을) 떼는 때는 그냥 자세를 취해서 떼면, 하체 조각은 성기 부분이 잘 보이게끔 떼다”고도 폭로했다. 이어 “그럼 그걸 사진으로 찍는다. 정명석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교도관들이 사진과 편지를 검수하지 않나”, “그래서 꽃 사진을 합성해서 보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조은이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경위 및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지난 12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 설교에서 정명석의 성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